

신데렐라 보다 '돌싱'

이혼 경험 캐릭터 드라마 잇따라
무기력한 삶 살아가던 인물들
새로운 시작 등 따뜻한 시선 담아

열일곱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던져진 혼자 남겨진 도다해는 가족이 그리워서 결혼을 서둘렀고, 20대에 두 번의 이혼을 경험했다.

과거에는 이혼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며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두 번의 이혼을 겪은 도다해는 당당하게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을 담아낸다. 최근 종영한 tvN 화제작 '눈물의 여왕' 속 비중 있는 캐릭터로 등장했던 홍범자(김정난)도 세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돌싱'이다.

호랑이 무늬 옷을 즐겨 입으며 불같은 성격으로 집안 분위기를 자주 뒤집어놓는 홍범자는 이혼한 전남편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박살 냈다"고 자랑하며 "결혼과 이혼이 한 세트 같다"고 말하는 캐릭터다.

사랑은 없고 결혼은 미친 짓이란 결론을 내렸던 홍범자도 결국 드라마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전과는 다른 연애를 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현재 방송 중인 KBS 드라마 '역살 한번 잡힙시



tvN '눈물의 여왕'



JTBC '끝내주는 해결사'



JTBC 주말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나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

6일 방송가에 따르면,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 캐릭터를 내세운 드라마들이 잇따라 시청자들을 찾는다.

지난 5일 처음 방송된 JTBC 주말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는 중학생 딸이 있는 복귀주(장기용 분)와 '이혼녀' 도다해(전우희)가 등장한다.

장르는 판타지 로맨스물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판타지보다는 따뜻한 감성으로 담아낸 휴먼 드라마에 가깝다.

주인공 복귀주는 언제든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슬립 초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아내와 사별한 뒤 능력, 삶의 의지도 잃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

도다해 역시 나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외로운 마음에 성급하게 결혼한 첫 번째 남편은 틈만 나면 다른 여자를 찾았고, 두 번째 남편은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폭력을 행사했다.

복귀주의 엄마 복만흠(고두심)은 "아름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어보면 어떨까"며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어주려고 하고, 드라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

다'의 주인공 서정원(김하늘)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캐릭터로, 지난 3월 종영한 JTBC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 속 주인공 김사라(이지아)도 남편과 이혼한 후 연수원 동기인 동기준(강기영)과 결혼하며 해피엔딩을 맞는다.

이혼한 캐릭터들이 드라마 속 조연 캐릭터를 넘어 주인공 자리까지 꿰차게 된 배경에는 과거보다 이혼이 흔한 일이 되면서 전처럼 금기시하지 않게 된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드라마는 거울과도 같이 사회를 반영한다"며 "이혼한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에서 드라마 작가들이 '돌싱'을 주인공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 속 주인공은 완벽해 보이면서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나름의 결핍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혼 경험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지만, 여전히 잘못된 편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드라마가 이혼을 갈등 요소로 가져다 활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임영웅 '온기' 세상밖으로

새 싱글 앨범 작사·작곡 참여
임영웅표 감성 발라드 등 수록

가수 임영웅이 6일 오후 6시 새 싱글 '온기'를 발표했다고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밝혔다.

이번 싱글에는 타이틀곡 '온기'와 '홈' (Home) 두 곡이 수록됐다. 임영웅은 '온기'의 작사와 작곡, '홈'의 작사에 각각 참여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이 밖에 스타 작사가 김이나가 '온기'의 노랫말을 썼다.

'온기'는 서정적인 가사와 따뜻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임영웅표 감성 발라드다. 전날 먼저 공개된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임영웅의 표정 연기와 여운을 남기는 엔딩이 돋보여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

'홈'은 함께 즐기고 따라 부르기에 좋은 노래다. 힘든 날 함께 해준 이와 해가 뜨는 날 평생 함께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임영웅은 오는 25~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 (I'M HERO - THE STADIUM)을 연다.

/연합뉴스

어린이와 함께 웃은 '개그콘서트'

25년 만의 첫 전체관람가...울동·분장 위주 코너, 술 등 없애

"우리 이거 녹화할 수 있는 거야?", "일단 대본을 싸다 지워주세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방송된 KBS 2TV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사진' 1074회는 전체 관람가로 녹화가 진행된 배경과 그로 인한 출연진, 제작진의 고민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했다.

1999년 첫 방송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 제작된 이날 방송은 한 어린이 시청자의 편지 때문에 기획됐다.

이 어린이는 개그콘서트 PD에게 보낸 편지에서 "녹화 현장에 가고 싶는데, 만 15세 이상만 입장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며 "어린이가 못 보게 하면 '개그콘서트'가 오래 못 갈 수도 있다"고 써서 웃음을 자아냈다.

출연진은 아이디어 회의를 거듭하며 대본과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등 고심했다. 소개팅을 소재로 한 '데프콘 어때요' 코너에 출연하는 조수연은 전체 관람가로 방송한다는 소식에 "우리 코너 큰 일 났다"고 말했고, '금쪽유치원' 코너의 이수경은 "(대본을) 싸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그콘서트'는 이날 '금쪽유치원'과 '캄보주', '최악의 악(?)', '데프콘 어때요', '감사합니다', '심곡파출소', '레이디 액션', '캣플릭스', '바디언즈', '소통왕 말자 할매' 등 10개 코너를 선보였다. 코너 구성과 배치는 어린이 시청자들의 취향과 눈높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였다.

첫 코너인 '금쪽유치원'은 어린이가 적어진 미래에 원생이 두 명뿐인 유치원을 배경으로 코미디언 홍현호와 이수경이 유치원생을 연기하는 내용이다. 한 주 전에는 '최악의 악(?)'이 오프닝 코너였으나 이날은 어린이날을 맞아 '금쪽유치원'이 첫 자리를 차지했다.

홍현호와 이수경은 등장 직후 무대 위에서 인사하던 평소와 달리 직접 객석으로 내려가 어린이 방청객들과 서로 손뼉을 맞부딪히면서 인사를 했다.



어린이날이라는 점을 코미디에 활용해 '심곡파출소'와 '캄보주' 등에서 어린이가 받은 용돈을 엄마가 가져가는 내용을 담아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2년에 종영한 코너 '감사합니다'가 12년 만에 무대에 서고, 올해 4월 21일을 끝으로 방송에서 볼 수 없던 코너 '바디언즈'도 선보이는 등 주로 분장과 노래, 율동 등을 결합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어린이의 눈높이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 됐지만, 다소 산만하고 성인이 보기에는 큰 웃음을 유발할 만한 지점을 찾기 어려운 단점도 있었다.

방청석에 초대된 어린이들은 밝은 얼굴로 무대를 지켜봤다. 어린이 방청객들은 호응과 소통을 유도하는 코너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거나 합성을 질러 무대에 오른 출연진에게 힘을 보탤었다.

전체 관람가로 꾸며진 이날 방송은 시청률 3.1%를 기록했다. 올해 '개그콘서트'가 2~4%대 시청률을 오가고 있고, 직전 방송분의 시청률이 2.8%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